

말기신부전환자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¹,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², 말기신부전 임상연구센터

권오연¹, 최지영¹, 서정주¹, 진미경¹, 홍경득¹, 류정훈¹, 윤세희¹
송명진¹, 조장희¹, 김보경², 김장락², 박선희¹, 김찬덕¹, 박기수², 김용림¹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Owen Kwon¹, Ji Young Choi¹, Jung Ju Seo¹, Mi Kyung Jin¹, Kyung Deuk Hong¹
Chung Hoon Yu¹, Se Hee Yoon¹, Myung Jin Song¹, Jang Hee Cho¹
Bo Kyoung Kim², Jang Rak Kim², Sun Hee Park¹, Chan Duck¹, Ki Soo Park², Yong Lim Kim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²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End Stage Renal Disease in Korea

목적: 본 연구는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질환 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하고, 이와 연관된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2개 대학병원에서 한국의 말기신부전 대상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 등록된 투석환자 중 6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병원은 2010년 2월, 다른 대학병원은 2010년 6월에 시행하였다. 설문도구로 한글판 KDQOL-36을 사용했으며, 이는 육체적 요소, 정신적 요소, 증상, 질환의 영향, 질환의 부담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등을 포함하였고, 투석 관련 변수로는 치료방법, 투석기간, 원인질환, 투석 적절도를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는 237명이었으며, 혈액투석이 172명, 복막투석이 65명이었다. 각 영역별 평균은 육체적 요소는 46.3점, 정신적 요소는 49.2점, 증상은 67.6점, 질환의 영향은 58.5점, 질환의 부담은 41.1점이었다. 육체적 요소는 남자, 낮은 연령 군, 교육수준이 높은 군, 직업이 있는 군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p < 0.05$). 정신적 요소의 경우 남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질환의 부담 영역은 교육수준이 낮은 군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원인 질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혈압 52.8점, 당뇨병 34.7점, 사구체 신염 48.3점, $p < 0.05$). 증상 영역은 혈액투석이 69.6점, 복막투석이 62.1점으로 치료방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질환의 영향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지표가 없었다.

결론: 투석환자에서 삶의 질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투석방법 및 원인질환과 관련이 있었다.

Key Words: 삶의 질, 말기신부전

Quality of life, End stage renal disease